

국무총리 표창 수상한 예재길박사

“양돈산업 발전이 곧 국가산업 발전”

“양돈·수의분야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정받은 것 무엇보다 기뻐”

「양돈업계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일반과학기술에 밀려 소외되기 쉬운 양돈(축산)·수의분야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지난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원(대덕연구 단지내)에서 열린 제2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축산·수의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예재길박사(한국바이오텔화학

(주) 부설 동물의학연구소 학술부장, 본지 편집위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축산·수의분야가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돼지홍막폐염 원인균 국내 최초 분리

예재길박사는 양돈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돼지홍막폐염의 원인균(*Haemophilus Pleuropneumoniae*)을 국내 최초로 분리하는데 성공했으며, 혈청형

조사와 치료법을 개발해 25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는 한편, 돼지콜레라와 대장균성 설사병등 수입종돈에 빈발하고 있는 가축질병의 치료법을 개발, 양돈농가에 보급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돼지홍막폐염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양돈장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질병으로 비육돈 폐사의 주원인이며, 심할 경우 비육돈의 20%까지 폐사시키는 암적인 존재이다.

예박사는 76년 서울대 수의과대를 졸업한후 종돈장에 직접 근무하기도 한 이론과 실무를 고루 겸비한 실무박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양돈장에 근무할 당시 양돈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돼지홍막폐염 연구를 시작, 2년간의 끈질긴 실험끝에 79년 국내 최초로 원인균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예박사는 원인균 분리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이에대한 대책으로 앰피실린제제를 치료제로 선정하는 한편, 간편한 진단법과 백신을 개발하여 양돈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양돈업계에 2,500억원의 피해를 예방해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최근엔 돼지홍막폐염 발생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고.



▲제24회 과학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예재길박사

예박사는 이어 홍막폐염균 71주를 분류하여 혈액형 검사를 실시, 종돈무역에 있어서의 질병전파 역학관계를 밝혀냈고, 연쇄상구균 감염에 의한 내막염 원인균 14주를 분리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제11차 세계돼지질병 학회에서 연구논문도 발표

예박사는 지금까지 12편의 논문을 대한수의학회지 등에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엔 스위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돼지질병학회에 참석,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Coagglutination법을 이용한 돼지홍막폐염균의 혈청형 구분과 진단법」에 관해 세계 최초로 발표하여 세계 석학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

기도 했다.

예박사는 '84년 6월에 현 근무처인 한국바이오킴화학부설 동물의학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돼지홍막폐염 외에 돼지콜레라, 대장균성 설사증, 파스튜렐라병, 파보바이러스병, 자돈의 뇌막염, 돼지단독등 돼지질병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이들 질병의 예방, 치료방법을 양돈농가들에게 보급하는 등 기술지도도 게을리 하지 않는 돼지질병박사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바이오킴 동물의학연구소가 농림수산부로부터 '89년도에 동물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지정을 받았고, 병역특례연구소로 지정을 받기도 했다. 연구소에서는 현재 25종의 백신을 개발, 양돈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산학협동연구로 돼지 질병박멸에 최선 다할 터”

예박사는 「앞으로 동물의학 연구소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신제품 개발·보급에 진력하는 한편, 신물질합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킴화학에서는 신물질합성 연구소 설립도 적극 검토중이다.

예박사는 「우리나라 축산·수의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이론연구와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응용연구가 3위일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산학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수의분야 발전, 특히 양돈농가의 가축질병 방제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연구, 개발 부문 등 선진기술을 국산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업체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기업이 유지·발전하기 어렵다」며 축산관련회사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기관 등의 분발 촉구를 잊지 않았다.(대담: 김동성)